

주일의 의미와 주일 성수

이 정 엽
뉴비전교회 목사

얼마 전 미국 모교회의 교회 안내 소책자에 이런 문구가 씌어져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당신은 아침 체질의 사람이 아십니까?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토요일 저녁 한 시간 동안 모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는 주무십시오.”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황금같은 당신의 일요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십시오.”라는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말이 결코 이 시대에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설득력 있어 보이기까지 한다. 그만큼 우리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주일 성수란 구시대적인 유물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불신자 전도도 중요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끌어 모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도 아니고,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부득이한 사정도 아니라, 주일날 놀러가는 사람들과 일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교회에 교인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1부 예배라 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구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난 교인들은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할가분한 마음으로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보낸다면 주님은 그들을 주일을 잘 지켰다고 기뻐하실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할 일 없이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소일하느니 차라리 장사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더 보람있는 일이 아니냐 해서 바친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까? 일요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라 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혹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하며 드리는 평일 예배를 주님은 주일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분명 이 시대는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주일을 못 지키도록 갖은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의 타협으로 주님의 교회와 신자들에 의해서 주일이 도적 맞고 멸시 당하고 있다.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는 안식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주의 교회와 신자들에 의해서 주의 날이 팔시당하며 무시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방관하며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겠다고 하는 참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방관하며

묵과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면 돌이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개혁과 또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와 신자들을 바로 깨우쳐주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개혁을 외치며 주님의 날을 바로 찾아 주일로 주님께 드리며 바로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일에 대한 냉대와 괘시는 주일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크게 기인하며,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도 주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문화적, 사회적, 육체적, 심리적 필요나 유익에서가 아니라, 그 날의 주인이시며 그 날을 제정하시고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옳바르다. 다른 어떤 자료나 사건과 해석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구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가시며 당신의 뜻을 밝히셨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주일의 의미를 찾아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바르게 찾아보고자 한다.

1.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주일의 의미

주일의 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1) 천지 창조와 안식일

안식일의 기원은 창 2:1-3에서 밝히고 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즉,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라고 하셨다.

먼저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상대적으로 앞의 여섯 날들은 복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섯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고, 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섯 날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충만히 실현되고 드러난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창조함 받은 사람에게도 그

날들과 그 날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은 복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일곱째 날을 가리켜 복 주셨다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는 말은 특별히 구별한다는 뜻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놓은 거룩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놓은 거룩한 장소로서 “성막”과 “성소”, 그리고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구별해놓은 거룩한 물건들로서 “성물”이 있다. 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놓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민”, “성도”가 있고, 그들의 모임을 “성회”라고 부른다. 또 시간적으로도 거룩하게 구별해놓은 “성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라고 부르며, 그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분해놓은 것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도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날들로부터 구별해놓은 거룩한 날인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날이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뜻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거룩한 것들은 그것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명명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이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이다. 따라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날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요, 그분께 속한 날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출 31:13)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식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들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사람에게 속한 날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구별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날인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놓은 것인가? 그것은 안식일을 복 주신 이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다 이루신 완성의 날이요, 당신께서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인가 그 이유를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고 영광스럽게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그가 옛세 동안 일하시느라 피곤하셔서 쉬이 필요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이다.(창 2:3) 즉, 더 이상 창조하실 것이 없이 완벽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도 일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고 우리 자신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만약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 행위이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가 지으신 만물들을 보고 흡족하셨고 만족히 여기시며 기뻐하셨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하나님만 혼자서 좋아하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그같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을 찬양해야 됨을 내포하고 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이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시 148:3-5).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대”(시 8:1)라고 찬양 드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시 8: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 139:14)라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일곱째 날만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 매일을 그렇게 살되 특히 안식일을 대표로 그렇게 지킴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일곱째 안식일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인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가서 천지 만물의 궁극적인 도착지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다. 창조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손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제 멋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결단코 창조시 세우신 자연 법칙에 의해 움직이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간의 손에 내맡긴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손에 의해 제 멋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은 우주 만물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영원한 안식과 복과 거룩의 상태와 목표를 예시해 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처사였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인 목표와 상태를 내다보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며,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다. 매일 일만 하고 이 땅에만 집착하여 살 자들이 아니라, 이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정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 모두가 하나님 품안에서 이같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복되고 거룩한 상태에서 살며, 이같은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의 날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렇다고 본다면 안식일의 의미는 참으로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소망과 희락의 날인 것이다.

한편, 때때로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 주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적도 없고, 또 사람들이 안식일 지켰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창 2:1-3의 안식일이라는 명칭과 그 날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을 들곤 한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안식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필요치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은 우리들의 선부른 속단이요 그것을 확증할만한 증거나 사고가 아니다. 더욱이 일곱째 날이 갖는 의미와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을 뜻하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인간이 스스로 알아 드리기에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당신의 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받으실 당신의 영광을 다른 무엇에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제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고 또 지키지 못하였던 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 신앙의 구체적인 표현과 증거로서 안식일이 무슨 날이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신 것이다. 잊혀지고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이고 교육하신 것이다.

모세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사모하였는지는 노아를 통해 증명된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 그런데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rest)을 뜻한다. 창 5:29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고 하였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인류가 어떤 상태로 떨어졌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가 아닐 수 없다. 노아가 출생할 당시 세상은 극도로 악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았던 라멕은 참 안위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현 세상에서의 삶을 대신할 참 안식을 누릴 날이 올 것을 소망하였던 것이고, 그것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기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지었던 것이다. 이같은 행동은 참 안식이 무엇인지, 누가 안식을 주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라멕이 이런 정도라면 모세 이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단든지,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 모세의 십계명과 안식일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에 관한 계명과 그 계명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 까지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과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면서 정하신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져 내려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모세 이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안식일의 의미와 실체가 어떠했는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원하고 복되고 거룩한 참 안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던가? 먼저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모하고 바라며 부족하나마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하셨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는 예표이었다. 시편 95:11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나안을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킨다고 지적하였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히 3:11). 즉,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히 3:7-4:11의 말씀들은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삼으셔서 그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이라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를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참 안식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저 말로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마라고 하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장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창 15:13), “네 자손은 사 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창 15:14)라고 약속해주셨다. 말하자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한 연후에야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그것은 사백 년 동안의 애굽 종살이를 한 연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아홉 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열 번째 장자를 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린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 이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결국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참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얻어짐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진전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참 안식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볼 수 있다. 죄인들이 스스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의존해서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희생 대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다.

한편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그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말미암아 잊혀지고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히셨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통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살 때에 기억하고 지킬 말씀들을 미리 가르쳐주신 것이다. 그것 가운데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이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셨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출 20:2). 이어서 제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 여기서 우리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에 관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

제 칠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제 칠 일에 쉬신 날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제 칠 일은 여호와의 날임을 명심하고 그 날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며, 또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관한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같은 명령이 이미 하나님의 천지 창조 후에 세우신 그의 안식을 위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 역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처사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다.

모세를 통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주실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임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그쳤다고 한다면 모세를 통해 주신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진전이 없는 제

자리에 머무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은 그 동안 아무 일도 진전시키지 못한 분이 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구체적인 땅으로서 안식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안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됨을 보여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과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당신의 참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는 구원 역사를 전개하며 발전적으로 이루어 가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모세를 통해 설명되어진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확인된다. 신 5:15에 의하면 이미 출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의 내용 외에 첨부된 말씀이 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첨부되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것은 참 안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서 비롯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됨을 생각한다면 지극히 마땅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날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안식일의 개념은 장차 이 땅에 실제로 오실 예수님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내다보는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 안식일은 실제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는 그림자적인 내용을 이미 내포하고 있으며, 그 그림자의 실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안식일이 제 칠일이 아닌, 부활의 첫째 날, 곧 주일로 바뀌게 되는지를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만 자들이 많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일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안식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그 안식에 저절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히 3:18-19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 취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여 거부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다. 애굽에서 구출된 그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과 안식을 누리보지도 못한 채 불신과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폐죽음을 당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십계명을 주신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믿거나 알지 못하였고, 형식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겠지만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왜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제대로 깨닫거나 순종치 못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실체가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인지 고찰해야 될 것 같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4:8-9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즉, 가나안 땅은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고 하였다. 즉 아브라함 역시도 가나안 땅을 실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의 예표로 보고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단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하였다. 즉, 가나안 땅이 표상하는 영원한 안식처인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한 성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발로 밟고 들어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았는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수 1:13).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처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가나안 본토인을 정복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발로 땅을 밟은 만큼 그들의 안식처는 확장되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모든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수 23:1)고 하여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며, 가나안을 정복한 것을 안식을 얻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당대에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열 두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것은 그들이 이미 다 정복하여 소유한 땅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정복해 가며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땅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차지 하라고 당부하였다(수 23:5).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에서 안주하거나 가나안 족속과 타협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퇴보하여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타협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속히 멸절할 것을 경고하였다(수 23:13, 16).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실제적인 안식을 누렸다. 그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을 멈추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안식처를 얻었던 것이다. 그들은 안식을 누렸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안식을 실제로 성취된 것으로 누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얼마나 실제로 성취되는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만 누리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당대에 누렸던 안식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부터 참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해준다.

둘째로, 이같은 안식을 누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뒷짐지고 있고 하나님만 일하셔서 그들에게 거저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명령을 따라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본토인과 싸우며 정복하여 실제로 발로 밟은 만큼 그들의 안식처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며 정복한 만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며 죄의 욕망과 사단의 유혹을 정복한 만큼 우리의 안식처가 확보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장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사단과 죄와 대적하여 싸워 승리한 만큼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내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안식은 그들 당대에 다 성취되어 더 이상 바라고 소망을 할 것이 없는 완성되고 완전한 것으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더욱 추구해야 할 안식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안식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전체였다. 그리고 그 땅은 다윗 때에 다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었나?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선 그들의 남은 자들만 다시 그 땅을 회복하여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가나안이라는 지역적인 땅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축할 것을 약속해주셨다(사 2:2-4; 9:6-7). 즉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완성되고 실체로서의 안식처가 아니라, 임시적이고 지상적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바라보는 예표적인 것이었다.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안식의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누리시고, 당신께서 누리신 그 안식을 그가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릴 책임을 주신 사람에게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이라는 일곱째 날을 통해서,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온전하고 복되고 거룩한 영원한 참 안식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역사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창조 이후 구약 시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다.

3) 예수님과 안식일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참 안식을 주실 실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이다. 먼저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당시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며 지켜왔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왔는가?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을 배척할 정도로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며 가르쳐왔고 지켜왔다.

그들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켰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예비일”이라 불리우는 금요일에 모든 필요한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과 두 강도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옮긴(막 15:42) 유대인들의 열심은 이에 대한 좋은 설명이다.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었던 거리도 제한되었다(행 1:12). 안식일에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회당에서 낭독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태도에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과 자세와 행동들을 문제 삼으셨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친 것과 그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것 등을 문제삼아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비난하였고, 결국은 이 일로 책잡혀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유대인들의 무슨 잘못을 지적하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못 지킨 것인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일관을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안식일관은 자연히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빚게 되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마 12:1-8을 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2절)고 따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이삭을 잘라먹은 도적 행위 때문에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그같은 행위는 율법에도 허용되어 있다(신 23:25). 문제는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안식일이었고, 그것은 엄연히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악된 행위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것을 허용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첫째로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너희가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바로 알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신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하셨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는 가운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였는데 그 때 아히멜렉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이 있어서 그것을 다윗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었다. 아무에게 줄 수도 없고, 아무나 먹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제사장만 먹었다고 할 때는 제사장만 먹고 그에게 속한 식구들은 먹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듯이, 그와 함께 한 사람들도 함께 먹겠지만, 그러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같은 법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율법의 진의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진설병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로서 제사장들만 먹게 만드신 것이다.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되었다는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 신약 성도만큼은 잘 알지는 못하였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한 대로 가르쳐 알게 한 다음 진설병을 들게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의 지도하에 그와 함께 한 사람들에 주어 먹게 하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자기 가족들도 먹게 하였다면 그 나라의 큰 일군인 다윗에게,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억울하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덮어놓고 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진설병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성결한가를 묻고서 확인한 다음에 주었던 것이다(삼상 21:4-6).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으라는 법 조문만 보고서 왜 그같은 법을 내셨는가 법의 진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바리새인처럼 법을 어겼다 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판단에 의하면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과 그의 수하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 된다. 그러나 법의 본 뜻을 바로 알고 따른 아히멜렉

제사장은 비록 그것이 법 조문을 어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법대로 이행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다윗과 그의 수하들도 성결한 상태에서 그 떡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이 답변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의 본의를 잘 알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의 율법 조항에 얽매어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일하였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5절)고 반문하셨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성막에서 다른 어떤 날보다도 가장 많이 수고하는 날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 조문만 본다면 그들은 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냐는 반론인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안식일이라 하여 일을 안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셨고, 또 다윗 역시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굶어 죽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같은 일들은 범법 행위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같이 명하신 법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는 것이 마땅함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6-8절). 앞에서 말씀하신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일은 다 성전과 관련된 일이었다. 만약 성전이 없다면 제사장이며 진설병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성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 하여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이를 위해서 일하다가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겠느냐고 비교해 생각해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성전과 비교하신 이유는 성전에 관련된 예를 앞에서 드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간접적으로 밝히시기 위해서이다.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이며, “너희들이 그토록 열심히 지켜 드리는 제사며 안식일 등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행해진 것인 줄 아느냐? 바로 나다!”라고 지적하신 것이다.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크신 이, 바로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느라 애쓰고 허기가 진 제자들을 대접하며 위로해주며 긍휼을 베풀기느라 이삭 훑어 먹은 것으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정죄하느냐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이다.

또,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안식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있고, 또 안식이 주인이신 예수께로 말미암아 주어짐을 뜻한다. 이것은 마 12장 바로 앞 11:28-30과 연관된 말씀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놀라운 것은 이제는 안식일과 가나안 땅처럼 참 안식을 기다리고 바라는 미래적인 안식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와있는 안식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께로 나아갈 때에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밝혀주신 것이다. 창조 이후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고 고대하던 참 안식이 비로소 실현되는 실체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그동안 바라며 지켜왔던 소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요, 선포요, 실체이다. 그동안 역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참 안식이, 안식일과 가나안 땅을 통해 역사와 우주 만물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안식, 복되고 거룩한 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실체가 이 땅 위에 나타나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며, 참 안식을 너희에게 주마”라고 선언하며 초청하신 것이다. 이같은 말은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없는 안식이란 생각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을 주시는 실체로서 오셔서 일하시고 있건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것의 그림자만 붙들고, 겉으로 나타난 문자적인 법 조문만 들먹이며 사람들을 정죄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잡아죽이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 날은 단지 일하지 않으면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왜 일하지 말라고 하였는지, 그리고 일하지 않음으로써 참 안식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가르치신 길을 가지 않으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처럼 참 안식에 들어오도록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은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떳떳해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사역자들을 도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참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2:27)라는 말씀을 첨가하였다. 이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을 제정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리시고 당신의 안식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닌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 사는 자들처럼 안식일이 우상화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가도 불사하며, 사람을 구하고 고치는 일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잡아 죽일 생각까지 하였다. 한 마디로 그들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다. 안식일이 왜 있으며,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를 그들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못 이해하고 결정한 범위 안에서 생명을 내걸고 안식일을 사수한 사람들이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온데간데없고 안식일이라는 걸쭉데기만 걸치고 살았던 것이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이 범하는 과오가 아니다. 오늘날도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주일 자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인정해주시지 않는 자기 열심을 부릴 수 있다.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듯이 주일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개념 역시도 자신은 실컷 주일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였지만 전혀 주님이 인정해주시지 않는 잘못된 생애와 신앙 생활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여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날로 지켜서는 안될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다. 그 날의 주인이시며,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날, 주일인 것이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고 장차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날인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 날을 지킬 때 사람에게에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복된 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만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을 위하여 목적하시고 제정하신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마침내 이루는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께서 안식일과 관련하여 유대인들과 마찰을 빚었던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계속되는 마 12:9-15 말씀을 보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사람들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물었다.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준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아니었다. 병자가 그 곳에 있었고 그들이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는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연구하던 사람들은 마침 회당 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그 병자를 고치기 전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병을 고쳐주고 나면 사람들의 태도가 동정적인 눈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인지 아니면 더 확실한 송사의 증거를 잡기 위해 병자를 앞에 두고 먼저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웁으니라”(11-12절)고 답변하셨다. 그리고서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해서 고쳐주셨다. 주시할 것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옳다, 그러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답변하셨다는 사실이다. 예수께 질문한 사람들은 안식 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이처럼 무조건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금하고 지키며 가르치며 정죄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군 다나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죽을 병도 아닌데 안식일에 고쳤다면 그것은 안식일에 일한 것이 고,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라고 하여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왜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를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안 식일에 일한 것은 죄이다는 단순한 논리로 정죄하려 했던 것이다. 만약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 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변하면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은 편으로 간주하고, 일 하는 것이 옳다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으로 몰고 갈 셈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들의 올무를 피해서 다른 질문을 유도하고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다. 안식일은 일을 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죄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라고 지적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드셨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 이에 빠졌다고 한다면 붙잡아 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구덩이에 내버려둘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예수님의 이같은 예는 구약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 다. 신 22:4에 의하면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양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그냥 보고만 지나치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바 른 태도이겠는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짐승에게도 이런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데, 그것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귀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안식일에 일 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선을 행치 않으면 되겠느냐는 것이다. 일을 금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를 구 하는 선을 행하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옳은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 일을 바르게 지키는 일이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선한 일을 하셨다. 그러나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된다고 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구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키고 다녔고, 병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그를 덜미로 하여 예수님을 송사하고 잡아 죽을 구실로 이용하려 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른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14절)하였다. 참으로 이 얼마나 대조적인 태도와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예수님 이 안식일에 일하였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 “손을 내밀라”는 말을 한 것

밖에 없다. 그것이 일한 것이라면 예수께 시비를 걸고, 그를 죽이기 위해 모의한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말 대로라면 더욱 정죄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송사하듯 상황과 이유를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주일날 일했다고 정죄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은 선한 일이 아닌 일들을 주일날에도 하려는 무율법주의적인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부른 판단과 정죄를 조심해야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세상 일과 주일을 평일과 다른 없는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주님의 날로 지키지 못하는 위험에 빠져서도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안식일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은 요 5장에 기록된 안식일날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다.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8절) 하시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낫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10절)고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그렇게 명한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핍박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17절).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시는구나,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시구나, 우리도 범하자”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여태껏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쉬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우주 만물이 당신의 참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따라 지금 그 안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단지 일하지 않는 쉬는 날로만 알고, 일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바른 태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고, 잘못 행하고 있었던 안식일관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셨다. 문자에 얽매어 무조건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된다는 단순 논리와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주셨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날이 사람들을 구원하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날이어야 함을 말씀만이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셨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불쌍히 여기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날로 지킬 것을 가르쳐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결단코 안식일을 폐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경배 받아야 마땅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기까지는 유대인의 거부기가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충실히 이행하고 지키셨다. 그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율법을 다 완성하기까지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아래 있는 죄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갈 4:4-5; 롬 5:18; 10:4).

예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날로 온전히 지키셨다. 마 5:17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도 충만히 지키시며 완성하셨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불완전하여서 완전케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예표하고 의도한 바를 온전히 다 성취하셨다(“fulfill”)는 뜻이다. 특히 안식일에 연관시켜 볼 때 천지 창조 후 제정하신 안식일이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참 안식을 표상으로 하였던 것인데,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러 오셨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안식일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약속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라는 관계와 시점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가 기대하며, 안식일과의 관계면에서 이전과는 분명 다른 놀라운 변화가 있겠구나 예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예수님의 부활과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곧 지금의 일요일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의 궁극적인 의미를 성취한 사건이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천지 창조이후 계속 지켜 내려온 안식일의 예표를 마침내 이루는 성취의 날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기도 하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누리시는 영원한 참 안식을 사람과 온 천지 만물에게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목적으로 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과 온전한 의의 순종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점차적으로 계시하시며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바라보는 믿음의 실체와 실상으로서 예수께서 그 모든

안식일의 의미와 의도하는 바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까지 지키는 안식일과 그것이 예표하는 의미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와 예표와 표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필요치도 않게 된 것이다.

안식일의 그림자나 예표가 아니라, 실체요 실상이며, 안식일의 주인이시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자에게 참 쉬를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하셨었다(마 11:28-30). 그러나 그러한 참 쉬를 주시는 일이 죄인인 인간에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인 인간이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어느 인간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롬 6:23),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히 9:22)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누구인가?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짐승의 피가 아닌 참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마 1:21)하기 위한 대속자,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에 능히 그를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온 천하에 공공연하게 선포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신 것이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대속 사역이 하나님께 열납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의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안식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가 주시는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 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장차 올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지금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라고 하였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히 4:3),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히 4:10)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렸던 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안식이다. 그들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로서의 안식을 누렸다. 장

차 올 안식을 바라보고 그 날과 안식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히 4:9-10)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히 4:2-3)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참 안식에 들어와 누리고 있으며, 오직 예수께서 장차 다시 오심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구약 성도가 고대한 안식과 신약 성도가 고대하는 안식은 그 궁극적인 목표와 대상이 같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구약의 성도는 그림자로서의 안식을 누린 반면에, 신약의 성도는 실체와 참 안식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닌 제 칠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 땅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참 안식을 거부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다. 그들은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히 3:8-4:11),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안식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눅 24:36; 요 20:19, 26)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단순한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라, 참 평강을 주실 수 있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며, 평강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의 선포이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실망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나타나심은 평강을 안겨다 주었고, 그가 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듣는 모든 이의 심령 속에 평강을 심겨 주었다. 이처럼 이미 안식일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참 안식과 평강을 주셨던 것이다. 이제는 막연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와 현실과 실상으로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능케 되었고, 그리고 이전에 바라던 안식일의 모형이 실제로 이루어진 안식일이 지난 첫째날인 일요일에 이루어진 부활 사건을 통해 가능케 되었다. 이런 모든 특권과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참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일곱째 날인 안식일의 존재와 그것을 이전 방식대로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이제 완성과 실체와 기쁨과 환희와 평강의 날인 안식 후 첫째 날이 의미가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 최대의 축제의 날이 된 것이다. 이같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초대 성도들은 점차적으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지켰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던 것이다. 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을 주일로 지킨 사람들은 이전에는 제 칠일 안식일을 지켜왔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된 자들이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신들이 구원함을 받은 구원의 날이며, 옛 것이 다 지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안식과 축복과 거룩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린 어느 누구도 첫째날인 일요일을 안식하는 날로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의 날로 지키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부당하다 하며 반드시 제 칠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한 신자들이 없었다. 오직 새 날이 왔고 안식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만이 제 칠일 안식일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때때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참석한 것은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에서였지, 제 칠일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자 아직 구약 차원의 믿음과 그림자적 연약한 신앙 상태에 있는 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안식일의 회당 집회에 참석한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 곧 주일 예배가 확대하게 되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무의미하게 되었고 도태되었던 것이다. 오직 낡은 헌 가죽 부대와 옛 세대에 살았던 자들만이 제 칠일 안식일을 지키며 주장하게 되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며 안식일로 지키는 일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 확대된 일이었으며, 그것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바로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한 마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지혜로운 처사였으며,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자다운 행동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태도와 반응을 기쁘게 받으셨고, 역사상 수많은 제 칠일 안식일 복귀와 일요일 주일 폐지의 위협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일요일 주일을 지켜 내려오는 원인자가 되셨다. 따라서 주일 성수는 부활의 평강을 누린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노력의 결정체만도 아니며, 그 동안 다수가 지켜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지키려는 것도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부활의 주께서 그의 교회와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고 보존하신 증거요 인정이며, 그의 날을 그가 사수 하시며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참 안식을 그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의 날, 곧 주일인 것이다.

5) 신약 교회와 주일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참 안식을 누리게 된 초대 교회 이후의 신약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까지 지켜온 제 칠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것이 바라던 바를 성취한 날인,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안식하는 날로 지키게 되었다.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고,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난 전환기에 있었던 초대 교회는 그들이 충만히 그같은 변화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키게 되었다. 그들은 제 칠일 안식일 대신에 첫째날인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서서히 주일을 지키도록 인내하며 기다렸고,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점차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확대하게 되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안식일에 대하여 거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입장을 취한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이 큰 마찰이 없이 첫째날인 주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책잡아 십자가에 못박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과 능력을 깨닫고 체험한 이후에는 그 날을 첫째 날로 바꿔 지켜도 큰 반기를 들지 않았던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초대 교회가 어떻게 주일을 지켰는지 성경에 소개된 실례들을 살펴보자. 먼저 초대 교회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린 증거로 행 20:7을 들 수 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물론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을 가리킨다. 그리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것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떡을 먹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주의 성만찬을 가리킨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일요일 집회는 바울이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일요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기적으로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던 것인데, 그 집회에 바울이 참석하여 다음날 떠나고자 한다니까 참석한 성도들이 밤 늦게까지 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의 드로아에서는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공식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의 예는 고전 16:1-2을 들 수 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매주일 첫날”은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그리고 일요일에 고린도교회가 정기적으로 모였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연보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일요일에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 두 번이 아니고 “매주일 첫날”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것이 일요일 정규 집회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을 비롯하여 여러 교회들이 일요일에 정규 집회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매주 첫날 집회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여 저축하였다가 사도 바울이 가면 그것을 그에게 주어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이같이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무안하거나 난처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연보하는 자들이 억지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고후 9:5-7), 자원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일요일

예배와 집회를 위해 엿새 동안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를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 집회를 위해 엿새를 일하며 준비하듯이, 일요일 집회를 위해 엿새를 준비하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었음을 시사해준다.

끝으로 안식 후 첫째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칭한 예가 있다. 계 1:10이 바로 그것이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일(The Lord's Day)”을 뜻한다. 안식일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날이었던듯이, 주께 속한 주님의 날로서 주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일요일을 주일로 칭한 것이다. 그리고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날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마치 오늘날 주일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주께서 주일에 주님의 계시를 주의 교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종,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명칭보다 “주일”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주후 95년 혹은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반 세기가 지났고, 또 그 동안 그의 복음이 전파되어 어느 정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그의 부활을 통해 참 안식을 누린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날인 안식 후 첫째 날, 일요일을 “주일”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부르며,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일”(主日)로서 일요일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렸던 것이다.

이같은 영적인 깨달음과 누림과 역사를 통해 사도 시대 이후의 문서들을 보면 주님의 교회들이 더 이상 일곱째 날인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주일을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예로서 디다케(주후 90-110년) 14:1에 “주 자신의 날(the Lord's own day)”이라고 하였고,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그나시우스의 마그네시안 9:1(주후 107년)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 것이라”고 하였으며, 바나바서(주후 70-100년)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 곧 제 팔일을 기쁨으로 지키노라”고 하였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도 이후 계속해서 교회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 내려왔던 것이다. 단지 제 칠일 토요일 안식일에서 첫날 일요일로 날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온 영적인 변화와 특권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일로 성별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로 지켰던 것이다. 그들은 주님이 없는 안식이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부르며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던 것이다.

그런데 흔히 제 칠일 안식일을 주장하는 자들은 일요일이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적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반대하곤 한다. 그리고 그 원흉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를 든다. 콘스탄틴 대제는 주후 321년에 다음과 같은 주일 휴무령을 발표하였다. “모든

재판관들과 도시에 사는 주민들과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문제는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태양의 날”이라고 불렀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 태양을 숭상하여 일요일에 예배하였던 미드라스교라는 이교적인 신앙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태양의 날”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태양을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요일을 축성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요일 호칭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할 것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한 사람은 콘스탄틴 대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이 먼저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안식하며 지키자 그것이 사회 전반에 파급하여 일요일 휴무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현 신자들처럼 “일요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른 것도 주일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좋은 답변이 될 것이다.

일요일 주일 성수는 결코 교황권에 의해서 유래되거나 명령되어진 것도 아니고, 무의식 상태에서 무조건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가는 습관적인 행동도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친히 목격하고, 그의 부활하심이 가져다준 엄청난 축복과 거룩케 하심과 안식과 쉼을 친히 누리고 체험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중심으로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축제로 기쁘게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날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 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 내려왔으며, 그 날은 주님을 위한 축제의 날로서 구원해주시고 참 평강과 안식을 주신 주님을 경배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안식을 피차 나누는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날로 지켜져 내려왔던 것이다. 역사상 수많은 반기독교자들이 주일 폐지와 주일 휴무 철폐를 실시하려 했으나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무모하고 배역한 행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다 실패케 하셨다. 지금도 역사의 주인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날이 이를 때까지 보존되고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에 의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로 성별하여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주일 성수는 단순히 안식일을 대신하여 선택된 날이 아니라 안식을 포함한 구속 역사의 커다란 흐름 즉,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야 왜 오늘 우리가 제 칠일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첫 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뒤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거스르며 배역하는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즉, 제 칠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며 거기에 생명까지도 내거는 열심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의 날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참 안식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하며 안심할 수 있겠는가?

6) 주일에 대한 용어를 통해서 본 주일의 의미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 기독교가 제 칠일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지, 그 성경 신학적인 근거와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일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용어와 관련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1) “첫째 날”(The First Day)

“첫째 날” 혹은 “첫 날”이라는 말은 주일에 관한 최초의 명칭이다. 그리고 이 명칭은 유대적 날짜 계산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된 명칭이다. 그들은 토요일을 “일곱째 날”로 불렀고, 일요일은 “첫째 날”로 불렀다. 따라서 유대적 안식일인 일곱째 날과 기독교의 주일인 일요일 첫째 날은 엄연히 다른 날이며 명확히 구분된 날이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 짓는 날이다.

그리고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리고 그 날은 천지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영생을 누리게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새 창조의 날이다.

고후 5:17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새로운 창조의 사역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자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묘사하고 있다. 엡 2:10에서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엡 2:24)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날인 일요일 주일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재창조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창조된 날인 것이다. 그래서 주일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 받은 피조물들이 창조주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날인 것이다.

안식일은 옛 창조의 마지막 날이었고, 주일은 새 창조의 첫 날이다. 안식일 준수가 첫 창조

를 기념하기 위하여 명령되었듯이 주일은 새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지고 죽은 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새 창조의 날을 정하신 것이다. 주일이 새 창조의 시작의 날이기에 안식일은 끝이 난 것이다. 마치 할례가 폐지되고 세례가 새 언약의 표징이 되었듯이, 안식일은 주일이라는 새 언약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폐지된 것이다.

그리고 첫째 날은 “빛의 날”로 불리웠다. 천지 창조의 첫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은 빛의 창조자이시며(창 1:2), 그는 빛이시다(요일 1:5). 그리고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을 세상의 빛이시다고 말씀하셨고(요 8:12; 9:5; 12:46), 참 빛으로서 빛을 발하시며(요일 2:8),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눅 2:32),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이시다(벧전 2:9).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빛이 밝아오는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일 것이다(마 28:1; 막 16:2; 눅 24:1; 요 20:1).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도 어두운 영적 눈을 밝혀주고 깨닫게 해주며 조명해주는 빛의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다(엡 1:18; 행 16:14).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마 5:14; 빌 2:15)이며,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엡 5:8; 살전 5:5; 요일 1:7; 롬 13:12-14).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받아드리는 것을 빛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받기 전의 인간이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전제하며, 복음을 통해 빛이 되고,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주일은 빛의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도래한 날이다. 그래서 주후 2,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첫 날은 빛이 창조된 날이고 참 안식의 날이다. 이 날부터 첫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조명해 준다”라고 하였고, 또 아나톨리우스는 “주께서 부활하신 축제의 날은 빛의 날이며...태초에 빛이 우리에게 비추인 날도 주일이었고, 종말인 지금 현재의 모든 위로와 미래의 축복의 보증으로 비추어지는 것도 바로 주일에 되어지는 일이다”고 하였다.

이처럼 첫째 날로서의 주일은 새로운 창조의 날이며, 빛의 날로서 이전의 옛 창조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완성시킨 새롭게 창조한 새 날인 것이다.

(2) “주일” 혹은 “주의 날”(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오직 단 한 번 계 1:10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는 “주의 날”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일요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공식적인 예배의 날로서 준수하였다. 그들은 주의 날을 예외 없이 예수의 부활과 관계시켰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곧 일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선언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의 만찬을 베풀기 위하여,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

기 위하여 주의 날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주의 날은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초대 기독교는 그 날이 예수의 부활 축제의 날로서 준수하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주의 만찬을 정기적으로 행하였다. 그것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는 주님의 말씀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주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살아계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 이었고, 또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서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그들은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기억하였다. 그 날은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이요, 큰 기쁨의 날이며, 그 날의 주인공은 예수이시며, 그 날에 부활하신 이도 예수이시며, 그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도 예수이시며, 그 날 떡을 떼고 먹은 이도 예수이시며, 그 날에 성경을 열고 그 자신에 관하여 풀어주시며 말씀하신 분도 예수이시고, 그리고 그 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도 예수이시고, 또 그 날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평강을 선포하신 이도 예수이시며, 그 날 그들 가운데 서신 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따라서 그 날은 그 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주의 날”, “주일”(主日)이다.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 로마의 가이사가 주(the Lord)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며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날로 지켰으며, 그 날은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그 날을 제정하시고 소유하신 분으로 믿었다. 주일은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며,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며, 오직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바치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날이었던 것이다.

(3) “여덟째 날” 혹은 “제 팔일”(The Eighth Day)

이제 마지막으로 주일에 대한 다른 명칭, 곧 “여덟째 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레 23:39에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팔 일에도 안식할 것이요”라고 하여 첫 날과 제 팔일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이 날에는 성회로 모여 노동을 하지 말고 안식할 것을 명하셨다. 그리고 오순절은 일곱 이레 후 제 팔일되는 날이다. 그리고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부활 후 여드레가 지난 날이라고 하였다(20:26). 또 구약의 할례는 난지 팔일만에 행하도록 명령하였는데(창 17:10-12), 이것은 인간은 날 때부터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할례(죽으심: 사 53:8; 골 2:11-13)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거룩한(레 19:23) 하나님의 영적 후손이 되었음을 뜻하고 바라보는 예표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

백하는 자들이 받는 세례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신약의 성도들에게서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언약의 징표로서 필요치 않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가 필요 없듯이, 제 칠일 안식일은 제 팔일 주일의 도래로 완성되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골 2:11-17).

그러면 왜 한 주간이 일곱 날도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팔일을 사용하신 것일까? 그것은 일주일이란 개념이 한정된 시간과 피조계를 가리킨 반면에, 여덟째 날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을 상징하고 장차 올 영원하고 완전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창조가 궁극적으로 완성된 새로운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나라와 날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 팔일이라는 인간 세계에 없는 개념을 도입하신 것이다. 지금 제 칠일 다음의 제 팔일인 새 날, 곧 주일을 지킬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요, 지금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주님의 날이 있고, 그 날을 대망하며 살아야함을 깨우쳐주시기 위한 것이다. 결국 여덟째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날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여덟째 날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 여덟째 날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의 날이라면, 그 종말론적인 실현은 그의 몸인 교회가 부활하는 날이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며 변형되는 마지막 부활이 실현되는 날을 사모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은 종말론적 축제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주의 만찬과 사랑의 나눔은 이런 종말의 축제를 미리 맛보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여덟째 날은 새로운 창조의 마지막 완성을 의미한다. 일요일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듯이 여덟째 날은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어 이후로는 영원하고 완성된 참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는 날들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은 단순한 일을 하지 않는 노동의 휴식이 아니라, 새 안식으로서 모든 주의 종들이 주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와 봉사의 날이다(계 22:3).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덟째이자 영원한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도 역시 영원한 안식 상태에 들어가는 사실에 그 중심이 놓여 있다. 그 때 우리는 안식하며 보고, 보며 사랑하고, 사랑하며 찬양할 것이다.”

이처럼 제 팔일로서의 주일은 처음 천지 창조가 첫째 날에 시작하여 안식일에 끝나듯이, 새로운 창조가 주일에 시작하여 여덟째 날에 완성됨을 뜻한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필요했다는 것은 옛 창조계가 스스로 완성에 이를 수 없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죄와 불순종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순종과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룬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조 사역은 시작되었고, 완성이 확실케 되었다. 그러므로 여덟째 주일은 옛 체제의 안식일을 완성하고 폐하는 날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초대 교회부터 주일에 붙인 세 가지 명칭, 첫째 날(혹은 첫날), 주의 날(혹은 주일), 그리고 여덟째 날(혹은 제 팔일)과 관련된 주일의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이제 그것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a) 주일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자 마지막 완성의 날, 곧 제 팔일이다. 이 날은 새 언약의 분명한 표상이다.

b) 칠일 중 하루를 주의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 십계명의 제 4계명의 원리는 새 언약 아래 있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칠일 중에서 아무 날이나 하루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인 일요일 주일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c) 주일은 축제의 날이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모여 예배드리며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날이다. 그 날의 축제는 장차 누릴 천국 생활의 모형이다.

d) 제 칠일인 안식일이 옛 언약의 상징이었고 표징이었듯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표식이요 표징이다.

e) 주일은 빛의 날로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받아드리서 빛의 자녀가 되며, 복음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 날이다.

2. 주일 성수(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이제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실제적인 적용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일을 바로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일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받아드리며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주일이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어가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주일의 의미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명심해서 그 본의대로 잘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주일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주일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 관습이나, 정치적 목적과 육체적, 심리학적 유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정하신 목적이

분명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주도하시며 인도하셨다. 따라서 주일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이미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 그 날을 어떤 날도 여기며,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신 것처럼, 신약의 주일도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으시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주일의 의미를 근거로 하여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

주일은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 기억하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 항상 염두에 두고 상기하라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내용을 잊지 않고 상기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요일이 주님의 날인 것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아로새기고 그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명심하고 상기해야 된다는 말이다.

결단코 주일은 저절로 지켜지는 날이 아니다. 그 날이 주일인지 상기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날이 주일인지도 모른 채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 지나칠 수 있고, 또 그 날을 주님의 날이 아닌 나의 날로 도적질할 수 있으며, 부스러기의 한 두 시간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 인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일은 아무런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지키는 날이 되어서도 안된다. 주일은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주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상기하며 잊지 않고 순종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주일 하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옛새를 살겠다는 삶의 자세에서, 주일을 바라보고 주일을 기다리며, 주일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변혁되지 않으면 안된다.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힘차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옛새를 위해서, 옛새 동안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그칠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또 장차 영원하고 거룩하며 복된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일하며 준비하고 사는 자임을 주일을 지킴으로 상기하고, 참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서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통해 입증이 되는 것이다.

2)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주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날이지만, 그러나 그 날은 사람 마음대로 사용하며,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아니라,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날인 것이다.

이런 주의 날임을 명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다. “거룩”이 주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이므로 주일은 평일처럼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주의 날로서 다른 옛세와는 분명히 다름이 드러내져야 하며, 평일처럼 똑같이 여기며 보내서도 안되는 것이다. 종종 어떤 신자들은 일요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요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신자치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만약 그 사람의 말대로 일요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날이기 때문에 귀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면, 그같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주의 날로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바가 아닌가? 말만 그럴 듯 하게 하고 자기는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평상시같이 일하며 주일을 푸대접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으며, 모든 날들이 주님이 주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외관상의 거룩한 모습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고급 양복과 보석으로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정반대로 마음이 중요하다 하면서 평상시처럼 되는대로 입고 자기 편한 자세와 태도로 주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과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나의 아버지요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이신 주님이시지만 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주와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려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경배하려고 나온 것이므로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옷차림, 자세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거룩하신 주님을 알현하는 진지함과 정성됨과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외모와 자세까지도 정결하고 가장 최고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선행을 베풀며, 서로 도와주고 위하여 기도하며 심방하고 서로의 믿음을 돈독히 하며 격려하는 날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이 영원한 하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도록 굳게 세워주는 날이 되어야 한다.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해지고, 옛세 동안 세상 사는 동안 죄와 세상

욕망에 빠진 자가 회개하며 주님 품안으로 돌아오며, 이제는 주님 말씀과 주님의 나라와 영원한 본향과 안식처를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주 안에서 싸우도록 무장시키는 주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는 소극적인 거룩만이 아니라, 죄를 대적하여 싸우고 주의 전신 갑주로 무장시켜 파송하는 적극적이고, 또 나 하나만이 아니라 주의 교회 전체의 공동체적 거룩함을 더욱 공고히 하는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할 것이다.

3) 평상시 하는 일을 쉬어야 한다.

구약의 안식일만 일을 하지 말고 쉬는 날이 아니라, 신약의 주일도 평상시 하는 일상적인 일을 쉬는 날이다.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우리의 노동을 쉼으로 이미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삶으로 증명하며, 그가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일에 평상시처럼 일하는 것은 그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인 것이다.

주일은 자기만 쉬는 날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과 자기의 종업원들도 쉬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출 20:10). 그리고 그 날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쉬는 날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로 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차 주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차적으로 주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득이한 일들이 있다.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은 병원에서 대기하며 일해야 하고, 발전소나, 통신사, 혹은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들처럼 피치 못할 경우들이 있다.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들이고, 그같은 일에 종사하는 신자들도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 주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그것을 위해 주일날 갖는 집회나 사귀를 게을리 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되고 먼저 주님께 드리고 주의 백성들과 교제를 갖고 난 연후에야 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주일에 일하면 수당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주일에 일하는 것을 자처한다든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남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갈수록 시대는 악해져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더욱 가세될 것이다. 주일마다 행해지고 있는 각종 스포츠와 취직 혹은 예체능 시험들, 주일날에도 학교나 직장에서 나오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면서 주를 먼저 기억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주일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불사하였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참 신앙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히

10:25 말씀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주의 교회와 백성들은 주일을 폐하고 침해하며 방해하려는 움직임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날이 주의 날임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안식일이 주의 백성에게만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안식하는 날로 그 날을 거룩하게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믿는 자들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모든 사람이 주의 날로 지키는 안식하는 날이 되도록 주도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모든 방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야 한다.

이미 살펴본 마 11:28-30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만이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아래 있기 때문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참 안식은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참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주로 모시며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살전 5:16),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빌 4:6-7).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따라서 이같은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모시며 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5)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누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처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와 참 안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미완성의 상태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가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도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며,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일요일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장차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일인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영원한 천국 생활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며 즐기고 있는 것이다. 나 혼자만이 그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과 더불어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려고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주일은 나와 나의 가정만을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사는 주의 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 생활 하겠다는 신자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크게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며, 자기가 궁극적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고 살지 않는 행동인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앞에서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런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지상의 교회요, 공동체로서의 성도의 삶이며, 주일을 지키는 이유인 것이고, 그런 목적 의식과 삶이 있어야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참 안식에 들어가기로 소망하며 그 나라와 그 날을 사모하며 지키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미 이 땅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며 살지 않는 그것이 전부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실현되는 것임을 바라보는 재림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의 약속을 상기하고 신뢰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는 그 나라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끝으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 교회 안에는 주일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신자이지만 믿음의 정도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전히 주일을 지키지 못하여 마음 중심으로 괴로워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질책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주일을 온전히 주의 날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도하며, 세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권하라”(히 10:25)는 말씀대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방치하거나 조장하지 말고 권하여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며,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고,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이 글을 읽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르고 거룩하게 주의 날로 성수하며, 주의 나라와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